

##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

박영주\*

### <차 례>

1. 접근의 시각
2. 어촌 한시의 유형적 양상
3. 어촌 시세계의 특징적 면모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우리 한시사에서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조명 받지 못한 어촌 심언광의 시세계에 개괄적으로 접근하여, 현전하는 그의 한시 작품수를 파악하여 유형적 양상을 살피고, 그의 시와 시세계에 결부된 역대 문헌들에 전하는 평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 특징적 면모들을 작품론에 입각하여 정리·논의한 것이다.

현전하는 어촌의 한시 작품수는 도합 850수로 파악되며, 율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형식에 상관 없이 특히 7언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850수의 내용을 작품 창작 계기 및 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술회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외직 경험이 많은 탓에 유람시 또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유시·관각시·애도시에 있어서 어느 사대부들에 견주어 많은 작품을 창작한 점이 두드러진다.

역대 문헌들에 전하는 어촌의 시와 시세계에 대한 평을 작품론적 실상에 입각해 살펴보면, 기풍 면에서는 ‘웅혼하고 도타우며 화려하고 아름다움[渾厚浮艷]’·‘기력이 혼연히 굳세고 물 흐르듯 노련함[氣力渾剛 波瀾老成]’·‘건실하고 풍부하며 화려함[健富麗]’이 돋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며, 격조 면에

서는 ‘수식과 기교를 배제한 진정성이 돋보임[無穿鑿纖巧之態]’·‘만당시의 풍격과 운치를 갖추고 있음[頗饒晚唐人風韻]’이 돋보이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촌 시세계의 유형적 양상과 특징적 면모들은 그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적절한 거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그가 일구어 나간 시세계 및 시적 성취에 대한 판단 준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핵심어 :** 어촌 심언광, 유형적 양상, 시세계, 기풍, 격조

### 1. 접근의 시각

어촌 심언광(漁村 沈彦光·1487~1540)은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도, 사후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가 생존·활동하던 당대에 권세를 이용해 파당을 만들고 수많은 화옥을 일으킨 김안로(金安老·1481~1537)를 천거한 정치적 오명이다, 이로 인해 결국 삭탈관직되어 낙향한 지 이태만에 세상을 떠난 것, 사후 144년만(1684)에 비로소 신원(伸寃)이 이루어진 것에 그 일차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원 이후에도 예의 정치적 오명의 잔영으로 인해 그의 시문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가 소원했던 점, 신원 이후 200여 년(사후 350년)이 지난 19세기 말(1889)에야 모양을 갖춘 문집이 간행된 것, 그리고 여기에 그의 문집이 간행된 지 다시 120년 가까이 이르러서야(2006) 국역본이 간행된 것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간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촌의 시문에 대한 논평이 전혀 없지는 않아서, 사후

\* 강릉원주대학교

떡잎떡잎 그의 시문에 대한 평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시적 능력이나 작품의 수준 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sup>1)</sup> 거기에다 최근에는 그의 생애와 시세계를 포괄적으로 조명한 개척적 연구<sup>2)</sup>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역본 간행을 계기로 학술세미나가 열리면서 그의 시세계가 지닌 특징적 양상에 대한 논의<sup>3)</sup>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들은 말 그대로 예외자적 주목에 해당하며, 어촌의 시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그가 이룬 시적 성취에 결부된 논의는 여전히 황무지에 가까운 실정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 포괄적 국면에서 현전하는 어촌의 한시 작품의 유형적 양상을 살펴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어 어촌의 시와 시세계에 대한 역대 평들을 한 자리에 모아 종합적으로 정리한 다음, 그의 시세계가 지닌 특징적 면모를 간략히 논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역대 시평이 실린 문헌 외에 모두 『국역 어촌집』<sup>4)</sup>에 의거하였으며, 작품 인용시 그 출처만을 간략히 명시하기로 한다.

1)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은 이어지는 장을 통해 살필 것임.

2)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3) 이한길, 「어촌 심언광의 한시 고찰」, 『어촌 심언광의 경세사상과 문학적 정서』(제8회 강릉 전통문화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강릉문화원·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2007; 이한길, 「어촌 심언광의 경포 관련 한시 고찰」, 『임영문화』 제31집, 강릉문화원, 2007.

4) 『國譯 漁村集』, 강릉문화원, 2006. 이 책은 1889년 活印本으로 간행된 『漁村集』 13권 4책을 대본으로 삼아 국역한 것이다. 참고로, 『漁村集』 초간본은 1572년 손자 사위 洪春年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들을 수습하여 遺集 4책을 活字로 간행한 바 있는데, 병란을 거치면서 거의 산일되었다. 1889년의 活印本은 후손 沈陽洙 등이 문집다운 모양을 갖추어 간행한 중간본으로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삼간본은 1937년 후손 沈千鏞이 10권 4책의 石印本으로 간행하였는데,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韓國文集叢刊 24

## 2. 어촌 한시의 유형적 양상

『어촌집』(1889)에 수록되어 있는 어촌의 한시 작품은 모두 848수다. 여기에 허균(許筠·1569~1618)이 편찬한 『국조시산(國朝詩刪)』에 소개되어 있으나 『어촌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칠언절구 2편 <능금꽃 떨어지다[來禽花落]>·<낙화(落花)><sup>5)</sup>를 합하면, 현전하는 어촌의 한시 작품은 도합 850수로 파악할 수 있다.

어촌 한시 작품들의 유형적 양상에 대한 고찰은 지금껏 이루어진 바 없다. 먼저, 이들 850수를 형식별로 갈라져 보면, 고시 72수, 절구 246수, 율시 522수, 배율 9수, 그리고 시구가 산일되어 온전치 않은 미완의 작품 1수로 파악할 수 있다. 율시가 전체 작품의 60%를 넘어설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촌은 특히 율시를 즐겨 창작하는 가운데, 정제된 형식미를 바탕으로 시상의 조직적 연계에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시 72수 가운데에는 사언고시 3수, 오언고시 47수, 칠언고시 19수, 기타 자수가 일정하지 않은 고시 3수가 있어, 오언고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절구 246수는 오언절구 38수, 칠언절구 208수로 이루어져 있어, 칠언절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또 율시 522수는 오언율시 173수, 칠언율시 349수로 이루어져 있어, 칠언율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배율 9수는 오언배율이 1수, 칠언배율이 8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어촌은 근체시 가운데 절구·율시·배율 가리지 않고 특히 ‘7언’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어촌의 한시 850수의 형식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國朝詩刪』 詩 卷3 七言絕句·「沈彦光」 항목에 소개되어 있다.

형식 분류	고시				절구		율시		배율		기타	총계
	4언	5언	7언	기타	5언	7언	5언	7언	5언	7언		
자수	4언	5언	7언	기타	5언	7언	5언	7언	5언	7언	미완	
작품수	3	47	19	3	38	208	173	349	1	8		
계	72				246		522		9		1	850

다음으로, 이촌의 한시는 양적으로 매우 호한하고 내용적으로도 여느 경우처럼 한 작품에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이를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그의 작품 전반을 조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특징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작품 간의 상관성이나 공통적 요소를 찾아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갈래지어 볼 필요가 있다.

이촌의 한시 850수의 내용을 작품 창작 계기 및 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대별해 보면, 술회시 242수, 유람시 192수, 교유시 160수, 관각시 118수, 애도시 66수, 영사시 40수, 경물시 27수, 기타 5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술회시	유람시	교유시	관각시	애도시	영사시	경물시	기타	계
작품수	242	192	160	118	66	40	27	5	850(수)
비율	28(%)	23(%)	19(%)	14(%)	8(%)	5(%)	3(%)		100(%)

술회시(述懷詩)는 가슴 속에 품은 포부나 자연의 물상들이 환기하는 감정으로부터 삶의 현실에서 겪는 고뇌와 애환에 이르기까지 적이 다채로운 내면의 소회를 토로한 것을 말한다. 이는 한시를 창작한 문인들에게서 가장 너른 분포를 보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촌의 경우 역시 242수(28%)에 이르는 가장 많은 작품이 전하는데,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의 초

기 작품들로부터, 강원도·충청도 도사(都事) 소임을 수행하던 30대 중반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말년에 강릉으로 낙향하여 지내던 시절의 시편들을 모아 엮은 『귀전록(歸田錄)』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대다수가 여기에 속한다.<sup>6)</sup>

유람시(遊覽詩)는 산수 간에 노닐거나 명승을 탐방하는 기행을 위시하여, 민정을 순찰하는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마주친 풍광들을 묘사하면서 감회 혹은 정취를 시화한 것을 이른다. 풍속이나 경관으로부터 환기되는 감회 혹은 정취가 빈번하게 노래된다는 점에서 술회시와의 차별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나, 작품 창작의 계기 및 제재에 초점을 맞출 때 구분 또한 가능하다. 192수(23%)의 작품이 전하는 이촌의 경우는, 강원도·충청도 도사를 비롯하여 강원도 관찰사, 평안도 경변사, 함경도 관찰사 등 외직에 나아가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여느 사대부 작가들에 비해 많은 작품이 전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집 속에 별도의 이름이 붙여져 전하는 『동관록(東關錄)』의 경우는 다소 덜하지만, 『서정고(西征稿)』·『북정고(北征稿)』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교유시(交遊詩)는 비슷한 연배 사이의 사귀음을 포함하여 마음이나 감정이 통하는 이들과의 교분(交分) 혹은 정의(情誼)를 주고받는 경우의 시를 일컫는다. 전통시대 선비사회에 있어서의 교유는 당대의 사회적 정황과

6) 『漁村集』은 작품 제작 시기를 염두에 두고서 편제한 것으로 보인다. 卷1(120수)의 시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과 벼슬살이 초기의 작품들로 보이며, 卷2(109수)·卷3(78수)의 시편들은 내직과 외직을 오가던 30~40대의 작품들을 수습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卷4의 『東關錄』(81수)은 강원도 관찰사 시절의 시편들로 보이고, 1536년이라 명기되어 있는 역시 卷4의 『西征錄』(116수)은 평안도 경변사 시절의 시편들로 보인다. 卷5 『北征稿』(148수)는 1537년 함경도 관찰사 시절에 지어졌다고 명기해 놓았으며, 卷6(52수)의 시편들은 외직에서 돌아와 다시 내직에 있을 때의 소작들로 보인다. 卷7 『館伴時雜稿』(30수)의 시편들은 1537년 함경도 관찰사로 나아가기 전, 관반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명나라 사신들과 수작하는 시편들을 중심으로 엮여진 것이다(卷7 말미에 이촌의 작품이 아닌 당시 중국 사신의 작품 2수, 후대에 덧붙여진 송시열의 작품 2수와 이담의 작품 1수가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卷10 『歸田錄』(114수)은 1538년 강릉으로 낙향한 이후 154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시기에 지어진 시편들로 보인다.

문화적 풍토 및 인간적 유대관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면에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넓게는 당대 지식인들 사이의 인간적인 교분과 정신적인 유대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좁게는 개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궤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160수(19%)의 작품이 전하는 어촌의 경우는, 교유의 폭이 매우 넓은 뿐 아니라 작품의 성향 또한 다채로운데, 교유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7수의 작품이 ‘송별시’인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관각시(館閣詩)는 벼슬살이 과정에서 표방하는 관인으로서의 자세나 정신적인 태도를 비롯하여, 왕업과 군주의 덕을 칭송하는 등 경국제민(經國濟民)에 결부된 내용을 위주로 한 화려하고도 장식적인 표현미가 중시되는 시를 통칭한다. 여기에서는 그 연계선 상에 놓여 있는 우국·애민·연군을 제재로 한 시편들까지를 두루 포함하였는데, 어촌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 118수(14%)에 달하여 예사 사대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작품이 전한다고 할 수 있다. 어촌의 관각시 가운데에는 주로 외직에 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우국·애민·연군을 제재로 한 시편이 33수, 관반사(館伴使)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명나라 사신들과 수작하는 시편들을 모아 엮은 『관반시잡록(館伴時雜錄)』에 전하는 30수, 축하나 기념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지어 선물로 전하는 계축시(契軸詩)가 24수, 특정의 날에 기둥이나 바람벽에 써 붙여 그 의미를 환기하는 첩자시(帖子詩)가 16수, 그리고 관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노래한 일반적 관인시가 15수로서, 여느 사대부들에게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계축시·첩자시가 40수에 달하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sup>7)</sup>

애도시(哀悼詩)는 말 그대로 이승을 떠난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편들

7) 어촌의 관각시와 관련하여, 김은정은 契軸詩의 경우 관리로서의 자부심과 포부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이한 찬 자긍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고 하였으며, 帖子詩의 경우는 화려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임금의 은혜와 덕을 기리고 있는 예가 두드러지며, 館伴詩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관각시로서 화려한 수식과 전고를 많이 활용하여 詩才를 한껏 드러낸 경우가 많다고 논의한 바 있다.(김은정, 앞의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15~19면 참조)

을 일컫는다. 어촌이 지은 애도시는 무려 66수(8%)에 이르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편들로부터, 친구며 선후배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편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특히 그와 가까이 지내던 이들의 아내를 애도하는 시편들도 적지 않으며, 장경왕후 능을 옮길 때의 만장(3수)이며 장현왕후 만사(10수)를 지은 것으로 미루어, 당대 애도시에 능한 인물로 손꼽혔던 것으로 보인다.

영사시(詠史詩)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제재로 한 시를 말한다.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회고의 시각에서 그리기도 하는데, 옛 일을 들어 현재를 풍유하거나 개인의 특정 사실을 회고하며 읊는 경우가 많다. 어촌의 영사시는 『어촌집』 권10 『귀전록(歸田錄)』 말미에 40수(5%)가 수록되어 전한다. 주나라 ‘태공(太公)’으로부터 송나라 ‘장세걸(張世傑)’에 이르는 중국 역사에서 주목되는 인물들의 생애적 특징과 그 의미를 각각 칠언절구 1수씩의 간결한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삭탈관직되어 낙향해 있던 시절의 심사를 한편으로 가탁해 달래면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논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물시(景物詩)는 자연의 정경이나 사물을 제재로 하여 그 자체의 속성이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노래한 시편들을 말한다. 자연의 정경이나 사물로부터 환기되는 정서나 흥취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술회시나 유람시와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대상 그 자체의 속성이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면에서 이들 유형과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촌의 경물시는 27수(3%)로 파악할 수 있는데, 국화를 노래한 시편(11수)이 가장 많고, 누정 주변의 경물을 노래한 시편(9수)이 그 다음이며, 이 외에 바위·호수·노송 등을 노래한 시편이 약간 전하는 바, 그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기타에 속하는 작품(5수)으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읊겨놓거나, 단오·칠석 등 풍속의 단면을 노래한 것, 그리고 시구가 산일되어 미완인 작품이 있다.

### 3. 어촌 시세계의 특징적 면모

어촌 시세계에 대한 논평이나 논의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영성하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핀 어촌 한시의 포괄적 국면에서의 유형적 양상과 함께, 그의 시와 시세계에 대한 많지 않은 역대 평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리·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특징적 면모들을 추출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 1) 어촌 시와 시세계에 대한 역대 평

① 『조선왕조실록』 : 1536년(중종 31년 1월 6일 / 5월 12일 / 10월 15일)

심언광은 사람됨이 질박하고 솔직하며 시문을 잘 하였다. 뜻을 얻자 자주 대각(臺閣)의 의논을 마음대로 하여 한때의 소장(疏章)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sup>8)</sup>

김근사에게 전교하기를, “심언광과 정사룡의 글 지은 점수가 똑 같으니 (두 사람이 모두 三上和 次上이었다) 마땅히 다시 같은 제목으로 글을 짓게 하여, 고하(高下)를 결정케 하라.” 하고, 상이 ‘동정추월(洞庭秋月)’로 칠언율시를 ‘서산제설(西山霽雪)’로 오언율시를 짓도록 시제(詩題)를 써서 내렸다. 그리하여 심언광이 1등을 하였고 활쏘는 일도 끝났다.<sup>9)</sup>

어가를 돌릴 적에 견항에서 낮을 머물렀다. 상이 ‘일출부상(日出扶桑)’이란 칠언율의 시제(詩題)를 친히 써서 시신(侍臣)들에게 모두 시를 짓게 하고,

8) 彦光爲人 野直 能詩文 及其得志 屢擅臺閣之議 一時疏章 多出其手 : 『朝鮮王朝實錄』 · 中宗31 1月 6日  
9) 傳于金謹思曰 沈彦光鄭士龍所製等畫(兩人皆爲三上次上) 宜更令作一題 決高下 上以洞庭秋月五言律詩 西山霽雪五言律詩 題書而下之 於是彦光居首 而射事亦畢 : 『朝鮮王朝實錄』 · 中宗31 5月 12日

또 좌상과 우상에게 고열(考閱)하게 하였다. 심언광과 정사룡 등이 우등을 하니, 특별히 만든 활 1장(張)씩 하사하였다.<sup>10)</sup>

중종 31년 1월조의 기록은 경변사 직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어촌이 야인 토벌에 관해 임금에게 아뢰는 기사 맨 끝에 덧붙인 사관(史官)의 평 첫대목에 등장하는 말이다. 질박하고 솔직한 어촌의 사람됨과 함께 그가 시문에 능한 인물로 널리 일컬어졌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헌부·사간원에서 작성되는 소장(疏章)들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관각문학에 가견이 있었음을 또한 헤아릴 수 있다.

이어지는 중종 31년 5월과 10월의 기록은 임금을 호종(扈從)하던 상환의 일화들로서,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던 호음 정사룡(湖陰 鄭士龍 · 1494~1573)과 시재(詩才)의 우열을 다투는 내용이다. 어촌의 나이 50살이던 해의 일인데, 이같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로부터, 어촌의 시적 재능은 그가 생존·활동하던 당대로부터 정평이 나 있었던 것을 새삼 헤아릴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어촌의 시재가 돋보이는 일화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의 시적 자질과 능력에 대한 세인들의 인식과 평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② 『학산초담』 : 1593년(『성소부부고』 권26)

어촌의 시는 웅혼하고 도타우며[渾厚] 화려하고 아름답기[浮艷]가 호음(湖陰)에 못지 않은데, 송계(松溪)가 중종 이래 대가를 평하는 데 뺄혀 있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내가 북변루(北邊樓) 시편들을 보다가 공의 시를 읽고는, 눈을 비비며 장단을 두드리 맞추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영동역(嶺東驛) 시는 다음과 같다.

10) 駕還 晝停于犬項 上親書 日出扶桑 七言律詩題 命侍臣皆製之 又命左右相考之 沈彦光鄭士龍優等 命賜別造弓一張 : 『朝鮮王朝實錄』 · 中宗31 10月 15日

총애와 모욕에 유유하다 두 가지에 다 놀래니	寵辱悠悠兩自驚
영락한 남은 목숨 그 어디에 붙일까.	飄零何處着殘生
하늘가 해질 무렵 고향 그리는 눈물	天邊落日懷鄉淚
변방의 늦가을에 고국 떠나는 마음일세.	寒外窮秋去國情
구름낙엽 어지러이 날아 산은 온통 새까맣고	雲葉亂飛山盡黑
등근 달 나직이 비치니 온바다는 밝아라.	月輪低照海全明
나그네 신세 오늘밤 유난히 시름겨워	羈愁此夜偏多緒
푸른 등불 마주앉아 한밤 지새네.	坐對青燈到五更

수성역(輸城驛) 시는 다음과 같다.

서울 떠나 가을 지나 변방 성에 머무니	去國經秋滯塞城
낯선 땅 풍경 모두 고향을 그리게 하네.	異方雲物摠關情
넓은 강 건너고 싶으나 뱃사공이 없고	洪河欲濟無舟子
겨울나무 말라가도 겨우살이는 매달렸네.	寒木將枯有寄生
스스로 비웃나니 일신 도모에 끝은 길 아니었음을	自笑謀身非直道
오히려 부끄럽네 세상 속여 헛된 이름에 붙들렸음을.	還慙欺世坐虛名
새벽에 문을 열고 푸른 바다 마주하니	曉來拓戶臨青海
아침 해 밝고 밝아 간담을 환히 비추네.	旭日昭昭照膽明

이와 같은 작품들이 어찌 호음(湖陰)의 무리만 못하단 말인가? 아래 시의 제4구는 김안로가 죽었지만 그의 잔당은 아직 다 죽지 않았음을 가리킨 것이다. [소주(小註)]……어촌의 <능금꽃 떨어지다[來禽花落]>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오런봄은 꽃잎 봄을 부촉해 늙은 가지에 피어나니	朱白扶春上老柯
누구를 위해 단장했나 촌사람 집을.	爲誰粧點野人家
한밤중 비바람에 초췌해질까 저어했더니	三更風雨驚僂僂
가지 가득한 능금꽃 다 떨구어 버렸네. <sup>11)</sup>	落盡來禽滿樹花

11) 漁村詩 渾厚富艷 不讓湖陰 而松溪評 中廟以來大家 不在選中 抑不知何意歟 余閱北邊樓題 讀公之詩 未嘗不揩眼而擊節也 嶺東驛曰 寵辱悠悠兩自驚 飄零何處着殘生 天邊落日懷鄉淚 寒外窮秋去國情 雲葉亂飛山盡黑 月輪低照海全明 羈愁此夜偏多緒

심어촌의 두견시는 다음과 같다.

삼 개월 삼길 임금 없어 이 몸을 조문하니	三月無君弔此身
두견새 울음소리에 다시 슬픔 견디기 어렵네.	杜鵑聲裏更悲辛
산중에서도 신하의 의리 폐하지 않나니	山中不廢爲臣義
서천에 두 번 절하던 사람을 따라한다네.	準擬西川再拜人

작품의 뜻이 너무도 서글프니, 모두 충심에서 나온 것으로, 임금을 사모하는 정성이 말 밖에 넘쳐난다. 저 아로새겨 꾸미거나 하는 자는 정말 싫증난다.<sup>12)</sup>

교산 허균(蛟山 許筠 · 1569~1618)의 시화집이자 시평집인 『학산초담』은 역대 문헌들 가운데 어촌의 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내용과 논평을 실고 있는 귀중한 자료다.

여기에서 교산은 어촌 시의 풍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웅혼하고 도타우며 화려하고 아름답다[渾厚浮艷]’는 평과 함께, 호음의 시에 건주어 전혀 뒤질 것이 없음에도 송계 권응인(松溪 權應寅 · 생물년 미상 : 16세기 중후반에 활동)이 어촌의 시를 대가들의 반열에 선평(選評)해 놓지 않았음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는 두 편의 칠언율시를 실례로 들면서, 구절마다 새삼 찬탄해 마지 않을 수 없으니, 이같은 작품들이 어찌 호음의 무리만 못하겠느냐고 구체적으로 반문하고 있다. 이어 어촌 작품의 한 대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면서, 소주(小註)

坐對青燈到五更 輸城驛曰 去國經秋滯塞城 異方雲物摠關情 洪河欲濟無舟子 寒木將枯有寄生 自笑謀身非直道 還慙欺世坐虛名 曉來拓戶臨青海 旭日昭昭照膽明 如此等作 豈下於湖陰輩邪 下詩第四句 指安老敗而餘黨未殄也 [小註]……漁村來禽花落曰 朱白扶春上老柯 爲誰粧點野人家 三更風雨驚僂僂 落盡來禽滿樹花 : 許筠, 『鶴山樵談』, 『惺所覆頌稿』卷26

12) 沈漁邨 杜鵑詩曰 三月無君弔此身 杜鵑聲裏更悲辛 山中不廢爲臣義 準擬西川再拜人 二作意甚悲愴 皆出肺腑 思親愛君之誠 藹然言表 彼雕飾者可厭 : 許筠, 『鶴山樵談』, 『惺所覆頌稿』卷26

를 통해서 『어촌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능금꽃 떨어지다[來禽花落]>라는 시를 소개하였다.

먼저, 맨 앞에서 교산이 ‘영동역’ 시로 소개하고 있는 작품은, 함경도 관찰사 시절의 시편들을 엮은 『어촌집』 권5 『북정고』에 수록되어 있는 <영동역에서 유숙하며 느낌이 있어 짓다[宿嶺東驛有感]>라는 칠언율시다. 이 작품에서 어촌은 중앙의 정쟁에서 밀려나 변방의 외직을 떠도는 서글픈 심경과 함께, 시름에 겨운 자신의 처지를 깊은 사념과 함께 선언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총애와 모욕 둘 다를 겪어 스스로 놀란다는 말에 이어, 쌀쌀한 바람에 구름처럼 어지러이 일어 하늘을 까맣게 덮는 낙엽과 나직이 떠올라 사해를 밝게 비추는 둥근 달의 대조적 정경을 통해, 자신이 놓여 있는 처지와 임금의 덕화이자 총애를 기리는 심경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교산의 찬탄이자 고평은 특히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산이 말하는 ‘수성역’ 시는, 역시 『어촌집』 권5 『북정고』에 수록되어 있는 <경성 주촌역에서 느낌이 있어 짓다[鏡城朱村驛有感]>라는 칠언율시다. 이 작품에서 어촌은 황량한 변방을 떠돌며 고향을 그리는 쓸쓸한 심경과 함께,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가 기실 스스로의 허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직설적으로 뉘우치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도리를 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을 ‘넓은 강 건너고 싶으나 뱃사공이 없고, 겨울나무 말라가도 겨우살이는 매달렸네.’라 그리고 있는 함련(韻聯)의 복합적 비유가 탁월하고, 진정성이 배어나는 경련(頸聯)의 자기고백을 거쳐, ‘새벽에 문을 열고 푸른 바다 마주하니, 아침 해 밝고 밝아 간담을 환히 비추네.’라는 미련(尾聯)의 일신된 분위기 묘사와 자기다짐이 청신한 이미지와 더불어 여운을 남긴다. 예의 교산의 찬탄이자 고평은 이 작품의 경우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특히 이 작품 함련의 아랫구 ‘겨울나무 말라가도 겨우살이는 매달렸네.’에 대해 교산은 ‘김안로가 죽었지만 그의 잔당은 아직 다 죽지 않았음을

가리킨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그의 시화집인 『성수시화』에서도 해당 대목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평을 덧붙이고 있으며, 후대의 여러 문헌들에서도 비슷한 논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주에 소개한 <능금꽃 떨어지다[來禽花落]>라는 어촌의 작품에 대해서는, 교산의 시선집인 『국조시산』에서도 작품 전문을 소개하고 간략한 평을 덧붙이고 있기에,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학산초담』의 또 다른 대목에서 ‘두견새’로 거론하고 있는 작품은, 1538년 강릉으로 낙향한 이후 1540년 세상을 뜰 때까지의 시기에 지어진 시편들을 모아 엮은 『어촌집』 권10 『귀전록』에 수록되어 있는 <운계사에서 두견새 울음을 듣다[雲溪寺聞杜鵑]>라는 칠언절구다. 이 작품에 대해 교산은 행간에 배어 있는 뜻이 너무도 서글픈 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연군의 정이 간절하다 못해 말 밖에 넘쳐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식과 기교를 일삼는 무리들의 시와는 그 격이 전혀 다르다는 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 작품 기구(起句)의 ‘삼 개월 섬길 임금 없어’는 『예기』와 『맹자』에 나오는 말로서, 그렇게 되면 조문을 한다는 말에 유래를 두고 있다. 또 결구(結句)의 ‘서천에 두 번 절하던 사람’은 두견새가 촉(蜀) 나라 망제(望帝)의 혼으로 서천에 살고 있다는 유래에 근거를 두고서, 어촌이 조정에 계신 임금에 대해 신하의 예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적막한 산중에 울려 퍼지는 서글픈 두견새 울음소리에 슬픔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연군의 애절한 정을 실어 신하의 예를 갖추는 어촌의 모습이 작품에 흥건히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산의 평은 그 충심어린 진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예사 연군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수식과 기교가 덧씌워진 경우와는 그 격이 현저히 다르다는 평을 한 것으로 보인다.

13) 『國譯 漁村集』, 596면 참조.

③ 『성수시화』 : 1611년(『성소부부고』 권25 · 설부4)

심어촌은 늘그막에 김안로와 사이가 벌어지게 되자 내쫓겨 북도방백이 되었는데 시를 짓기를,

넓은 강 건너고 싶으나 뱃사공이 없고	洪河欲濟無舟子
겨울나무 말라가도 겨우살이는 매달렸네.	寒木將枯有寄生

라고 했으니, 대개 후회하는 마음이 짝튼 것이리라.<sup>14)</sup>

앞의 『학산초담』에서 거론한 바 있는 『어촌집』 권5 『북정고』에 수록되어 있는 <경성 주촌역에서 느낌이 있어 짓다[鏡城朱村驛有感]>라는 칠언 율시의 함련만을 따로 언급한 대목이다. 어촌이 함경도 관찰사의 외직에 좌천된 것이 김안로와의 불화에 원인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면서, 어촌이 기묘사화(己卯士禍)에서 화를 입은 사람들을 복권·등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유배 가 있던 김안로를 궁중에 다시 끌어들이, 어촌 생애에 천추의 한이 된 그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행간에 배어 있음을 새삼 지적하고 있다.

④ 『국조시산』 : 17세기 초엽(시 권3 칠언절구 · 「심언광」)

<능금꽃 떨어지다>	
오런붉은 꽃잎 봄을 부촉해 늙은 가지에 피어나니	朱白扶春上老柯
누구를 위해 단장했나 시골사람 집을.	爲誰粧點野人家
한밤중 비바람에 초췌해질까 저어했더니	三更風雨驚僂僂
가지 가득한 능금꽃 다 떨구어 버렸네.	落盡來禽滿樹花

\*품평[批] : 아래 절구와 함께 두 수가 모두 맛이 있다.

14) 沈漁村晚與安老有隙 出爲北方伯 有詩曰 洪河欲濟無舟子 寒木將枯有寄生 蓋悔心之萌乎 : 許筠, 『惺叟詩話』, 『惺所覆嶺稿』 卷25 說部4

<낙화>

들복숭아꽃 지고 잎이 막 돋는데	野桃花謝葉初生
비오고 바람 불자 나비 날개인양 가볍네.	雨後風前蝶翅輕
가지 위 늦게 핀 꽃잎은 채 지지 않았으니	枝上晚紅猶未落
서낭이 늙어도 정이 많아서라네.	徐娘雖老尙多情

\*품평[批] : 비유를 끌어다 쓴 것이 아주 좋다.<sup>15)</sup>

두 작품 모두 『어촌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에, 자료 자체로서 가치가 높다. 이 절구 두 수와 관련하여 교산은 ‘모두 맛이 있다[具有味]’라는 단평을 통해 시적 묘미가 돋보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낙화(落花)>에 대해서는 전고(典故)를 끌어들이는 비유가 각별히 두드러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능금꽃 떨어지다[來禽花落]>에서의 ‘래금(來禽)’은 꽃이 떨어져 능금이 익을 때 썸 날짐승이 날아오기 때문에 붙여진 능금의 별칭이다.<sup>16)</sup> 능금나무 늙은 가지에 ‘오런붉은[朱白]’ 즉 옅고 고운 붉은 빛 감도는 흰 꽃잎의 기운이 봄기운을 북돋우어 점점이 피어난 것이, 시골에서 늙어가는 자신의 집을 단장할 양으로 피어난 듯 싶어 얼굴에 화색이 들었는데, 간밤 사나운 비바람 몰아쳐 초췌하게 만들까 염려에 조바심냈더니만, 아침에 이르러 보니 이내 가지 가득 피었던 그 꽃잎들을 다 떨구어 버렸다는 것이다. 봄날의 예상이 서정자아의 다감한 정서와 함께 점점이 묻어나면서, 시골 궁벽한 곳에서 늙어가며 자그마한 위안조차 여의롭지 못한 심경이 행간에 가득 넘쳐난다.

다음으로, <낙화>의 묘미는 특히 전구의 ‘늦게 핀 꽃잎[晚紅]’을 절구에 등장하는 ‘서낭(徐娘)’의 전고를 대비시켜 비유의 묘를 살린 데 있다.

15) 來禽花落 朱白扶春上老柯 爲誰粧點野人家 三更風雨驚僂僂 落盡來禽滿樹花 \*批 二絕具有味 落花 野桃花謝葉初生 雨後風前蝶翅輕 枝上晚紅猶未落 徐娘雖老尙多情 \*批 引譬好 : 許筠, 『國朝詩刪』 詩 卷3 七言絕句 · 「沈彥光」

16) 강석중 외 3인 지음,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대의 한시 · 3』, 문헌과해석사, 1999, 43면 참조.



‘서낭’은 중국 양나라 원제(元帝)의 비 서씨를 말하는데, 용모가 뛰어나지 못해 원제로부터 사랑을 입지 못하여 32년 동안 한 번 밖에 동침하지 못한 터에, 용모가 뛰어난 원제의 신하 계강(季江)과 간통하였는바, 계강이 항상 “서낭은 늙었어도 다정하기만 하구나.”라고 감탄하였다 한다.<sup>17)</sup> 이 같은 서낭의 고사를 끌어들이긴 했지만, 들복숭아 꽃이 지고 잎이 막 돌아나는 늦은 봄날, 비바람 몰아치자 상기 지지 않은 꽃 몇 이파리가 나비 날개인 양 가볍게 나풀거리건만, 그 몇 남지 않은 꽃잎들 사이에 늦게 피어난 꽃잎 채 지지 않은 것이, 마치 ‘늙었어도 다정하기만 한’ 서낭 같다는 것이다. 궁벽한 시골에서 ‘들복숭아’로 사는 자신이지만, 세상을 향한 다사로운 정 만큼은 늙어 가면서도 가슴 한 켠에 오롯이 간직하고 있음을 애잔한 듯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묘미들이 두 작품에 배어 있음을 가리켜 교산은 ‘모두 맛이 있다[具有味]’라고 평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낙화>에 대해서는 ‘만홍(晩紅)’을 ‘서낭(徐娘)’에 포개어 댄 것이 각별히 두드러지기에, ‘비유를 끌어다 쓴 것이 아주 좋다[引譬好]’라고 평한 것으로 보인다.

⑤ 「어촌집서」 : 1683년(『어촌집』 권수)

시부(詩賦) 등에 이르러서는, 모두 기력이 혼연히 굳세고[氣力渾剛] 물 흐르듯 노련하여[波蘭老成], 역지를 부리거나 기교를 일삼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나라 성대한 시기의 언어와 문장을 볼 수 있으니, 말년의 쇠퇴한 시기의 그것과는 스스로 구별되는 것이다.<sup>18)</sup>

중간본 『어촌집』에 수록되어 있는 서하 이민서(西河 李敏敘 · 1633~1688)의 「어촌집서」의 한 대목이다. 서하는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 1607~1689)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로서,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많은 시

17) 같은 책, 46면 참조.

18) 至其他詩賦諸作 皆氣力渾剛 波蘭老成 無穿鑿纖巧之態 可見其國朝盛時 言語文章 自別於衰季也 : 李敏敘, 『漁村集序』, 『漁村集』 卷首

문을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서하는 어촌 시의 풍격에 대해 ‘기력이 혼연히 굳세고, 물 흐르듯 노련하다[氣力渾剛 波蘭老成]’는 평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지를 부리거나 기교를 일삼지 않았다[無穿鑿纖巧之態]’고 했는데, 이러한 평은 교산이 『학산초담』에서 『어촌집』 권10 『귀전록』에 수록되어 있는 <운계사에서 두견새 울음을 듣다[雲溪寺聞杜鵑]>라는 칠언절구를 두고, ‘서글픈 뜻이 충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이어서 연군의 정이 말 밖에 넘쳐나니, 수식과 기교를 일삼는 무리들의 시와는 그 격이 전혀 다르다’는 평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시장」 : 1761년(『어촌집』 권13)

그 문장이 바르고 우아[爾雅]하여 관각에 연이어 등용되어 명문과 대작이 많이 그의 손에서 나왔으며, 더욱이 시에 뛰어나 건실하고 풍부하며 화려[健富麗]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일찍이 조칙(詔勅)을 가지고 온 사신 공용경 오희맹과 더불어 수창(酬唱)한 시가 당시에 널리 읊어졌다.……공은 구설수를 만난 후부터는 고향마을로 물러나 살면서 경호(鏡湖) 곁에 집을 짓고 낚시질하고 술마시며 시를 읊는 것으로써 스스로 즐거워하는 한편, 시대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며 자신을 반성하여 자책하는 뜻이 간간이 노래와 시 사이에 나타났다. 일찍이 두견시(杜鵑詩)와 일출시(日出詩)를 지어 스스로 비탄하였고, 저술한 시문으로 『어촌집』 4권이 세상에 간행되었다.<sup>19)</sup>

문암 이의철(文庵 李宜哲 · 1703~1778)의 「시장」 역시 중간본 『어촌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암은 어촌의 문장이 바르고 우아[爾雅]하여 당대 홍문관·예문관 등 언관(言官)에서 작성한 글들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으며, 관반사(館伴使)의 직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중국 사신

19) 其文章爾雅 延登館閣 名文大策 多出其手 尤長於詩 適健富麗 自成一家 嘗偃詔使 費用卿吳希孟 酬唱盛一時……公自遭口語 退處鄉里 築室鏡湖之傍 以漁釣觴詠自娛 其憂時愛君 反己自訟之意 往往發於歌詩之間 嘗作杜鵑日出詩以自悲 所著詩文 有漁村集四卷 行于世 : 李宜哲, 『諡狀』, 『漁村集』 卷13

들과 수창한 시들이 당시에 널리 유행했음을 말하고 있어, 이촌이 관각문학에 가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암은 이촌 시의 풍격에 대해 ‘건실하고 풍부하며 화려하다 [健富麗]’는 평을 함으로써, 그의 시편들에 강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제 의식과 풍부하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의 묘가 돋보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말년에 낙향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지어진 시편들에는, 풍류운사의 정취가 묻어나는 작품들과 함께, 우국·연군의 정을 담은 작품들, 환로(宦路) 시절 김안로와 결부된 일들에 대한 자책을 담은 작품들 또한 간간히 지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암이 말하는 ‘두견시’는 역시 교산이 『학산초담』에서 거론한 『어촌집』 권10 『귀전록』에 수록되어 있는 <운계사에서 두견새 울음을 듣다[雲溪寺聞杜鵑]>라는 칠언절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출시’는 같은 『어촌집』 권10 『귀전록』에 수록되어 있는 <운계사에서 일출을 바라보다[雲溪寺望日出]>라는 칠언절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밝은 빛이 조각 구름조차 가리지 않았고 / 바다 밑 붉은 수레바퀴에 푸른 파도 용솨음치네./ 바라건대 나머지 빛을 오래도록 밝게 비추어 / 이 몸의 간담이 본래 사악하지 않음을 보시라.[光明不被寸雲遮 海底紅輪湧碧波 願枉餘輝長洞照 此身肝膽本無邪]”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한때의 착각으로 낙척(落拓)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가슴 속 깊숙이 간직한 우국충정의 의지 만큼은 맑고도 순수한 것이었음을 술회하고 있다. 문암은 바로 이같은 이촌의 심경을 헤아려 두 작품을 각별히 따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⑦ 『성호사설』 : 1760년 무렵(권21 경사문 · 「심언광」)

중종 말기에 심언광이 내쫓겨서 북도 감사가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있었는데,

넓은 강 건너고 싶으나 뱃사공이 없고                    洪河欲濟無舟子  
겨울나무 말라가도 겨우살이는 매달렸네.                寒木將枯有寄生

라 했으니, 사람들은 이 시를 후회하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라 하였다.…… 안로가 패몰되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이는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이는 귀양을 갔는데, 언광의 시는 이런 일 때문에 지어졌던 것이다.<sup>20)</sup>

앞에서 살핀 교산의 『학산초담』에 전문이 소개되어 있고 『성수시화』에서 이 대목만을 거듭 거론한 바 있는 『어촌집』 권5 『북정고』에 수록되어 있는 <경성 주촌역에서 느낌이 있어 짓다[鏡城朱村驛有感]>라는 칠언운시 시의 함련만을 따로 언급한 것으로서, 『성수시화』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⑧ 『해동역사』 : 19세기 초엽(권69 인물고3 본조 · 「심언광」)

자구의 망원정(望遠亭) 시에,

흰 기러기는 찬 물가에 기대어 있고                    白雁依寒渚  
푸른 나귀 작은 다리 건너가누나.                    青驪渡小橋

라고 한 시구가 있는데, 자못 만당(晩唐) 시인의 풍격과 운치가 넘쳐난다.<sup>21)</sup>

‘자구(子求)’는 이촌의 또다른 자다.<sup>22)</sup> 한치윤(韓致胤 · 1765~1814)은 위의 『해동역사』에서 이촌의 시 한 대목을 들어, ‘자못 만당의 풍격과 운치가 넘쳐난다[頗饒晩唐人風韻]’고 하였다.

위 시는 『어촌집』 권7 『관반시잡고』에 수록되어 있는 <부사에 차운하

20) 中廟之末 沈彥光黜爲北路監司 有詩云 洪河欲濟無舟子 寒木將枯有寄生 人謂悔心之萌……至安老敗 或誅或竄 彥光之詩 爲此而發也 : 李瀛, 『星湖僿說』 卷21 經史門 · 沈彥光

21) 子求望遠亭詩有曰 白雁依寒渚 青驪渡小橋之句 頗饒晩唐人風韻 : 韓致胤, 『海東經史』 卷69 人物考3 本朝 · 沈彥光

22) 이촌의 字로 ‘土卿’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次副使韻]>(오언율시 2수, 칠언율시 1수) 가운데 두 번 째 오언율시의 경련(頸聯)이다. 그 전문은, “정자는 멀리 긴 강을 당겼고, 하늘은 아득히 넓은 언덕 머금었네. / 유리빛은 수면 위에 펼쳐어졌고, 복숭아 오얏꽃은 산허리를 돌렸네./ 흰 기러기 찬 물가에 기대어 있고, 푸른 나귀는 작은 다리 건너가누나. / 허전한 이 마음 술로 달래도, 내일 아침이면 그리운 님과 아득히 멀어지겠지.”[亭控長江遠 天銜闊岸遙 玻璃開水面 桃李匝山腰 白雁依寒渚 青驢渡小橋 肝腸托樽酒 雲樹隔明朝]이다.

미련(尾聯)의 내용으로 보아 중국 사신과의 이별을 제재로 한 것이지만, 미련에 이르기 전까지, 그리고 특히 경련에서 보여주는 선명한 색조의 대비를 배경으로 환기되는 이미지의 섬세함과 감각적 정취 및 낭만적 정서는, 한치윤의 평 그대로 만당의 풍격과 운치가 점점이 묻어난다 할 것이다.

## 2) 역대 평을 통해 본 이촌 시세계의 특징적 면모

이촌의 시는 그가 생존·활동하던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던 호음 정사룡의 시와 자주 비교되었으며, 그와 견주어 전혀 뒤질 것이 없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촌의 시재(詩才)가 돋보이는 일화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의 시적 자질과 능력에 대한 세인들의 인식과 평을 대변한다고도 할 것이다.

특히 교산은 그의 『학산초담』에서 이촌 시의 풍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써 ‘웅혼하고 도타우며 화려하고 아름답다[渾厚浮艷]’는 평과 함께, 호음의 시에 견주어 전혀 뒤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영동역에서 유숙하며 느끼는 있어 짓다[宿嶺東驛有感]>·<경성 주촌역에서 느끼는 있어 짓다[鏡城朱村驛有感]>라는 칠언율시 두 편을 실례로 들면서, 구절마다 새삼 찬탄해 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교산은 『학산초담』의 또 다른 대목에서 <운계사에서 두견새 울음을 듣다[雲溪寺聞杜鵑]>라는 칠언절구를 들어, 행간에 배어 있는 뜻이 너

무도 서글픈 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연군의 정이 간절하다 못해 말 밖에 넘쳐난다고 했다. 교산의 평은 그 충심어린 진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예사 연군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수식과 기교가 덧씌워진 경우와는 그 격이 현저히 다르다는 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교산은 『국조시산』에서, 『어촌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능금꽃 떨어지다[來禽花落]>와 <낙화(落花)> 두 편을 거론하면서, 절구 두 수가 ‘모두 맛이 있다[具有味]’라는 단평을 통해 시적 묘미가 돋보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낙화>에 대해서는 전고를 끌어들었으면서도 그 이미지의 배치가 각별히 두드러지기에, ‘비유를 끌어다 쓴 것이 아주 좋다[引譬好]’라고 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서하 이민서는 「어촌집서」에서, 이촌 시의 풍격에 대해 ‘기력이 혼연히 굳세고, 물 흐르듯 노련하다[氣力渾剛 波瀾老成]’는 평과 함께, ‘억지를 부리거나 기교를 일삼지 않았다[無穿鑿纖巧之態]’고 평하고 있다. 또 문암 이의철은 『어촌집』 말미에 실린 「시장」에서, 이촌의 문장이 바르고 우아[爾雅]하여 당대 홍문관·예문관 등 언관(言官)에서 작성한 글들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으며, 관반사(館伴使)의 직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중국 사신들과 수창한 시들이 당시에 널리 유행했음을 말하고 있어, 이촌이 관각문학에 가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암은 또한 이촌 시의 풍격에 대해 ‘건실하고 풍부하며 화려하다[健富麗]’는 평을 함으로써, 그의 시편들에 강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제의식과 풍부하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의 묘가 돋보임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한치윤이 『해동역사』의 「인물고」에서 논평한 바, <부사에 차운하다[次副使韻]>와 같은 작품에서는, 탁월한 경물 묘사를 통해 섬세한 이미지와 감각적 정취 및 낭만적 정서를 환기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만당 시인의 풍격과 운치를 갖추고 있다[頗饒晚唐人風韻]’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볼 때, 역대 문헌들에 나타난 평들을 근거로 한 이촌 시세계의

특징적 면모는, 우선 기풍의 면에서 ‘웅혼하고 도타우며 화려하고 아름다움’·‘기력이 혼연히 굳세고, 물 흐르듯 노련함’·‘건실하고 풍부하며 화려함’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격조의 면에서는 ‘수식과 기교를 배제한 진정성이 돋보임’·‘만당시의 풍격과 운치를 갖추고 있음’으로 함축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에다 어촌이 관각시에도 가견을 가진 시인이었음을 부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촌이 지향하고 있는 시세계가 크게 보아 문예미학적 수사와 기교를 중시하는 관인문학에 무게비중이 놓여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내면의 흥취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립문학에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촌 시의 시적 성취는 이와 같은 특징적 면모들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는 작품들로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4. 맺음말

본고는 우리 한시사에서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한 어촌 심언광의 시세계에 개괄적으로 접근하여, 현전하는 그의 한시 작품수를 파악하여 유형적 양상을 살피고, 그의 시와 시세계에 결부된 역대 문헌들에 전하는 평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 특징적 면모들을 작품론에 입각한 논의와 함께 정리·논의하였다.

우선, 현전하는 어촌의 한시 작품수는 중간본 『어촌집』에 전하는 848수와, 여기에 실리지 않고 교산 허균의 『국조시산』에 소개되어 있는 2수를 더하여, 도합 850수로 파악하였다. 이들 850수를 형식별로 갈래지어 보면, 율시가 전체 작품의 60%를 넘어설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절구·율시·배율에 상관 없이 특히 ‘7언’이 많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촌은 율시를 즐겨 창작하는 가운데 각별히 ‘7언’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850수의 내용을 작품 창작 계기 및 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술회시·유람시·교유시·관각시·애도시·영사시·경물시 등의 유형으로 대별해 보면, 술회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외직 경험이 많은 탓에 유람시 또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유시·관각시·애도시에 있어서 여느 사대부들에 견주어 많은 작품을 창작한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어촌의 시와 시세계에 대한 평은 그의 사후 띄엄띄엄 이루어졌는데, 이를 기반으로 작품론적 실상에 입각해 살펴보면, 기풍의 면에서는 ‘웅혼하고 도타우며 화려하고 아름다움[渾厚浮艷]’·‘기력이 혼연히 굳세고 물 흐르듯 노련함[氣力渾剛 波蘭老成]’·‘건실하고 풍부하며 화려함[健富麗]’이 두드러진 것으로 이해되며, 격조의 면에서는 ‘수식과 기교를 배제한 진정성이 돋보임[無穿鑿纖巧之態]’·‘만당시의 풍격과 운치를 갖추고 있음[頗饒晚唐人風韻]’이 두드러진 것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풍과 격조로부터 어촌이 지향하는 시세계가 문예미학적 수사와 기교를 중시하는 관인문학에 무게비중이 놓여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내면의 흥취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립문학에도 맥락이 닿아 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어촌 시세계의 유형적 양상과 특징적 면모들은 본고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어촌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가 평생을 통해 펼쳐나간 시세계의 특징과 시적 성취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거점이자 판단 준거로써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의미는 이러한 본격적 체계적 연구의 거점이자 판단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 데 있다.

참고문헌

<자료>

『國譯 漁村集』, 강릉문화원, 2006.  
 『朝鮮王朝實錄』  
 李瀾, 『星湖僿說』 卷21 經史門·沈彦光  
 李敏叙, 「漁村集序」, 『漁村集』 卷首  
 李宜哲, 「諡狀」, 『漁村集』 卷13  
 韓致胤, 『海東繹史』 卷69 人物考3 本朝·沈彦光  
 許筠, 『國朝詩刪』 詩 卷3 七言絕句·「沈彦光」  
 許筠, 「惺叟詩話」, 『惺所覆瓿稿』 卷25 說部4  
 許筠, 「鶴山樵談」, 『惺所覆瓿稿』 卷26

<논저>

강석중 외 3인 지음,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대의 한시·3』, 문헌과해 석사, 1999, 43, 46면.  
 김은정, 「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5』, 한국 한시학회, 2000, 15~19면.  
 이한길, 「이촌 심언광의 경포 관련 한시 고찰」, 『임영문화』 제31집, 강릉문화원, 2007.  
 이한길, 「이촌 심언광의 한시 고찰」, 『이촌 심언광의 경세사상과 문학적 정서』(제8회 강릉 전통문화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강릉문화원·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2007.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him Eon-gwang's Poetry

Park, Young-ju

This paper studies Eochon Shim Eon-kwang's body of poetry in a general way. He is one of the poets who represent the 16th century in Korea's history of poetry. However, so far there has not been any study on his body of poetry. This paper examined the number of his existing chinese poems, their types, and gathered criticisms of his works in historical literature and discussed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ult is brief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his poems amounts to 580 and Chinese verse styles account for an overwhelming majority. In content, they are mostly aspirations he has in mind and experiences of excursions. Second,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his body of poetry, its traits are magnificent, splendid, and beautiful, and its sincerity excluding embellishment and technical skills is outstanding.

This paper's meaning lies in the fact that it can be used 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his body of poetry.

Key words : Shim Eon-kwang, chinese poems, types, characteristics

투고일 : 2011년 1월 7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